

명운 가를 호남경선…주자들 막판 총력전

국민의당 내일·민주 27일 투표

민주, 팽목항 방문 등 표심 공략

국민의당, 막판 조직력 다지기

이번 주말과 다음 주초 진행되는 호남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주자들이 호남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주자들은 엄숙한 분위기를 보였으나 막판 표심을 얻기 위한 발걸음은 무척이나 분주했다.

◇ 민주당=문재인 전 대표는 23일 예정했던 대선 출마선언을 미루고 ‘세월호’에 집중했다. 그는 이날 아침 세월호 일부가 물 위로 드러나자 페이스북에 “1072일, 진실이 1m 올라오기까지 걸린 시간”이라며 “온전히 인양되고 미수습자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온 국민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썼다.

문 전 대표는 전북지역 공약 발표는 예정대로 했다. 그는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발표에서 청와대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새만금사업을 쟁기고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를 구축해 전복을 농생명 산업의 중추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호남으로 내려온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경영난에 빠진 금호타이어의 노조를 방문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에



문재인

서 경선돌풍을 일으킨 2002년을 기억하는 의미로 ‘어게인(Again 2002, 광주주의 기억)’ 행사를 했다. 23일에는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범시민대회’에도 참석했다. 안지사는 앞서 비공개로 팽목항을 찾았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지난 19일부터 호남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막판 표심잡기에 ‘올인’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국제인권기구 광주전남 유치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반대 ▲광주·전남 일자리 창출 등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지역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



안희정

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야 3당 공동개혁정부 구성 등 5대 국가대개조론과 호남 7대 신한류 문화권 프로젝트 등 10대 호남경제기적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민의당=대선주자들은 광주·전남·제주 현장투표가 이뤄지는 오는 25일이 사실상 전체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고 막판 조직력 다지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지난 22일 목포에서 목은 안철수 전 대표는 23일 이른 아침 목포 청호시장을 찾았다. 이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기자회견과 만나 “패권세력이 동서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닌 진정한 통합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문 전 대표 측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 대통령’ 발언 논란을 비판한 것이라



이재명

는 해석을 낳았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동영 의원과 전정배 전 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23일 오전에도 호남 의원들을 접촉하며 지지세 확산에 공을 들였다. 손 전 대표는 오후에는 보성에서 전남도당 대선기획단 발대식에 참석한 뒤 광주로 이동해 지지자들을 만났다.

당 경선 후보 중 유일한 호남 출신임을 내세우고 있는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23일 일찌감치 광주 지역구 행사에 달려갔다. 박 부의장은 오후에는 손 전 대표와 나란히 전남도당 대선기획단 발대식과 광주시민사회총연합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토론회에 참석해 표발을 다진 뒤 전북으로 이동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호남 국가균형발전 모델 삼겠다”

안철수, 목포서 지역발전 3대 원칙·미래 프로젝트 발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3일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아 호남 공약으로 ‘호남 미래 프로젝트’를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지역발전의 3대 원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과 집중 ▲지역의 사회·문화·산업 인프라의 적극 활용 ▲미래 성장산업 집중 육성 등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러한 3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호남을 미래 성장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개발, 사람이 모이는 호남을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전남 미래프로젝트, ▲전북 미래 프로젝트, ▲전남·북 공동체 프로젝트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호남 미래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광주·전남 미래 프로젝트에는 미래 자동차 산업,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 육성,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나노융합선도구역 조성,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등이 포함됐다.

전남·북 공동체 프로젝트에는 해양 에너지 복합 발전 플랜트 육성, 동북아 해양수산 관광산업 국제선도지구 지정, 서해 황금어장 복원 프로젝트 등이 담겼다.

전북 미래 프로젝트에는 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식품·농업단지 조성, 새만금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23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해 호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에 신산업 국가 R&D 실증 테스트 베드 조성, 전통문화 집중 육성, 안전보호 융복합 산업 육성 등이 제시됐다.

안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IT혁명을 이뤄냈듯이 20년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인사에서 호남 인재를 중용하고 미래 전략 산업의 호남 배치를 수 십 년 동안 누렸던 지역 경제력 격차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치권 주목 받는 ‘광주형 일자리’

‘더문캠 일자리위’ 광주서 토론회…전국 확산 모색

민선 6기들어 윤장현 광주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대선 정국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으며 전국으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예비후보 캠프 조직인 ‘더문캠 일자리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과 광주공장 대화실에서 ‘광주형일자리 확산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의 광주·전남 대선 공약에 포함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을 구체화하고, 그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후보는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자리 나눔과 사회통합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를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키울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육성과 나주혁신도시를 활용한 에너지밸리 조성 등의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박태주 광주시 일자리혁신학교 교장은 “지자체는 지역 자원의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중앙정부는 (가정)광주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친환경자동차 수요기반 조성 등의 협치를 해야한다”고 지방과 중앙의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자동차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고, 지자체의 강한 의지와 사회적 합의의 진전이 있는 점, 광주 인근 나주혁신도시의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신에너지산업 발전과 이를 친환경자동차산업과 결합하는 새로운 혁신산업 기반을 형성하기 쉬운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대한민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끊임없이 연구·발전시켜 반드시 성공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광주시당, 광주 대선공약 제안

중소기업 육성·4차산업혁명 선도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23일 광주의 경제·건설·문화·교통 및 물류·청년·광주정신 등 7가지 분야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25개 사업을 발굴해 이를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당 위원장인 권은희(광산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 개발 주요 사업 7대 분야의 25개 세부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과 4차산업 선도라는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는 협력업체 지원책 마련·중소기업 유통망 확보·스마트공장 정부지원금 확대·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제혜택 부여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4차산업 선도분야는 에너지밸리조성사업 적극 추진과 이를 통한 글로벌 친환경자동차·에너지 선도도시 조성, 국가차원 광융합기술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전담체계 구축, 국립자동차문화박물관 건립, 4차산업혁명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건설분야로는 미래건축도시 융복합연

구센터 건립을, 문화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지원 현실화·미디어아트 창의파크 조성지원·송암 문화콘텐츠밸리 조성 국가 핵심사업 선정 등을 내놴.

교통물류 분야로는 광주 제3순환도로 건설 4·5구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송정역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송정역사 재건립, 경전선 전철화 사업 조기착수,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등을 꼽았다.

청년 분야에서는 산업맞춤형 연계교육 발굴 및 지원 확대, 미래건축 전문대학원 유치, 에너지신기술 중심 공과대학 설립 근거마련 등이다.

광주정신분야로는 5·18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가보고서 발간, 5·18 기록관 국가기관으로 승격, 군기록물 공개법률 정비 등이다.

권은희 위원장은 “분야별 브랜드 활동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제시한 사업들이 대선공약에 반영돼 광주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달 15일까지 비문 후보단일화 추진”

김종인-정운찬 회동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3일 조찬 회동을 갖고 비문(비문재인) 진영 후보단일화를 대선 후보 등록일인 4월 15일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비문·비박’(비박근혜)으로 대변되는 ‘비(非)패권지대’ 구상이 각 당의 경선 국면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자 후보단일화를 통해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라는 분들이 막연하게 대선 후보만 되면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겠느냐”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

떻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회동 후 “(대선 후보 등록일인) 4월 15일 이전에는 물론 방향이 결정돼야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 전에 여러 번 모임을 해야지 않겠느냐”며 “그 이전이라도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김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김 메이커’ 역할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바른 정당은 ‘비문 후보단일화’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가지만, 국민의당은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 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1861㎡ 매15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보5000만, 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6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하영

토 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산정동 생산농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억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치평동 상가 임대

- 상무나이트 옆 스카이라운지
- 10층 795㎡(250평)
- 권리금 없음
- 음식점 / 병원 / PC방 적합
- 보증금 1억 월25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불로초교 바로옆
- 매매 4억 2000만원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28평)
- 보증금400만원 / 월47만원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300만원

문의 010-9203-6161